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정부 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2.(목) 배포 즉시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송환 스캠조직별 국민 피해유발 실태

국내 피해자 **869명**
추정 피해액 **486.7억원**



부부사기단



로맨스스캠

피해자 **104명** | 120억원

시하누크빌 조직



노쇼사기

피해자 **194명** | 69억원

포이펫 조직



여성 매칭 스캠(미팅 제안)

피해자 **30명** | 27.6억원

문돌끼리새 조직



투자사기

피해자 **13명** | 8.1억원

이○○ 조직



허위투자사이트

피해자 **299명** | 68억원

정○○ 조직



투자사기

피해자 **229명** | 194억원

담당 부서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책임자	과장	이지연	(02-2110-3294)
		담당자	검사	전성환	(02-2110-381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책임자	총경	이종서	(02-3150-2066)
		담당자	경정	조동현	(02-3150-2169)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	책임자	과장	김동윤	(02-2100-8201)
		담당자	경감	김진혁	(02-2100-8224)

